

# Art



아트인컬처  
March 2013

2013 동방의 요괴들  
신진작가 인큐베이팅

Artist /  
로메오 카스텔루치  
백남준 vs 박이소

Theme Special /  
일본 전후 아방가르드

차이가 제거된 (원)해골이라는 해부학적 사실로 평등하게 형상화하거나, 검은색을 입혀 철저히 비(非)백인화했다. 보편적 인간의 지위에 올라 있는 백인이 '아닌' 검은 인간이 영웅의 포즈로 관람객을 맞이할 때 기이한 감각이 등장한다.

바스키아, 자본주의 문화의 아이콘

국제갤러리 전시에 출품된 길이 2m가 넘는 <Desmond>의 주인공 데스몬드는 주로 백인 화가의 작업에 모델로 '사용된' 인물이다. 바스키아는 백인은 접근할 수 없는 1980년대 흑인 하위문화인 힙합을 경유해 흑인은 들어갈 수 없는 회화사 안으로 들어갔다. 요절한 '천재' 바스키아는 사실 1980년대의 문화적 지형도 안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구성물'이다. 도시를 뒤덮은 익명의 길거리 흑인의 문화적 테러는 미국의 문화생산자, 혹은 기업가형 화상에게 새로운 탈출구였다. 예술계는 바스키아에게 '검은 피카소'라는 후광을 입혔다. 그의 성공은 쇄도하는 위반적 문화에 관한 주류의 발 빠른 반응과 합병이었다. 어쨌든 1980년대는 미국의 문화적 급진주의를 상징하는 힙합과 문화적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신표현주의가 저급한 대중문화와 고급 엘리트문화로 병행했으니까.

조각난 판자를 붙여서 만든 것이건 관습적인 캔버스이건, 바스키아의 화면에는 부모의 '모국어'인 불어와 스페인어가 영어와 함께 해독 불가능한 일종의 시각적 기호이자 이미지처럼 떠다닌다. 또한 만화와 해부학적으로 인물 그리기를 접한 작가의 '유치하고, 원시적이며, 거친' 형상이 탈중심화된 배치 방식으로 병렬된다. 화면을 구성하는 서사는 바스키아의 개인사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흑인의 집단적 역사다. 읽을 수 없는 글자와 공감할 수 없는 인물들,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먹고 자길 스스로 선택했던 반항적인 청춘의 눈과 감각을 사로잡은 이미지와 소리와 형상은, 이해와 소통이 아닌 일종의 도전과 전복의 방식으로 관객을 포획하거나 소외시킨다. 관객은 길거리 삶과 낙서를 미적 형식으로 통합하며, '회화'라는 백인의 역사적 문화 형식으로 백인의 지배와 폭력의 역사를 환기하는 그의 작품 앞에서 심미적 관조를 욕망한다. 영화와 패션, '천재'를 둘러싼 자본주의 문화의 아이콘인 바스키아의 작품은 관객을 압도한다. SAMO!

바스키아의 자유분방한 화면은 사이 톰블리와 제즈, 램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계보가 접합된 데서 유래했다. 정규 교육을 거부하고 마약과 춤, 폭력이 일상인 길거리를 집으로 선택한 그의 '감각'은 과연 얼마만큼의 절정을

장-미셸 바스키아 (Desmond) 캔버스에 아크릴릭 218.4×172.7cm(부분) 1984 국제갤러리 출품작



청춘의 양식, 차이와 경계

장-미셸 바스키아展 2. 14~31. 3국제갤러리 성낙희/성낙영展 2. 8~3. 9 갤러리팩토리

차이와 경계를 녹여버리는 멜팅 팟(melting pot) 뉴욕. 그곳은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적 이상과 차이를 위한 싸움이라는 민주주의적 실천이 공존한다.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1960~1988)와 성낙희 성낙영의 2인전은 뉴욕에서의 삶, 뉴욕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감각과 정치의 접합 차이를 드러낸다.

흑인의 게토, 브루클린에서 태어나고 죽은 바스키아는 길거리 그래피티 프로젝트와 회화에 'SAMO(Same Old Shit)'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힙합 뮤지션이기도 했던 바스키아의 활동 시기는 레이건 행정부 집권 시기(1981~89)와 거의 일치한다. 세계가 더 좋아지고 있다 한들 항상 '똑같이 낡고 옛 같은!' 세계가 바스키아가 거주한 세계였다. 영화배우가 대통령이 되는 '꿈의 나라' 미국에서 (백인)영웅이었던 레이건 치하의 미국은 복지정책 축소와 대대적인 기업 세금 감면으로 차별화 정책을 지속해갔다. 아이티 출신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크리올(creole)인 바스키아는 마약과 폭력이 일상인 브루클린에서 체화된 '흑인성(Négritude)'으로 작가의 정체성을 시각화했다. 바스키아는 성공한 유명 인사를 욕망했다. 야구 선수 헝크 에런, 제즈 뮤지션 찰리 파커와 같은 그만의 영웅은 모두 흑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은 인종적